칠레 콘텐츠 관련 문화코드 및 심의규정

1. 법적 규제

- 칠레는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 폭넓게 보장하는 국가이나, 청소년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콘텐츠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.
- 영화는 **영화등급위원회(Consejo de Calificación Cinematográfica, CCC)**에서 연령등급을 심의하며, 일반적으로 TE**(전 연령), 14(14세 이상), 18(18세 이상)** 등으로 분류된다. 극장 개봉 영화는 상영 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, 등급에 따라 관람이 제한된다.
- 텔레비전 방송은 **국가텔레비전위원회(Consejo Nacional de Televisión, CNTV)**가 감독한다. CNTV는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, 폭력, 선정성, 차별, 허위정보, 아동·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, 과징금, 방송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.
- OTT 플랫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전통 방송과 동일한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지만, 일반 법률과 청소년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, 현지 법원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.
- 또한 **개인정보 보호법**, **저작권법**, **차별금지 관련 법률**, **소비자보호법** 등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에 적용되며, 허위 광고나 명예훼손, 저작권 침해는 민·형사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.
- 선거 기간에는 **칠레 선거관리청(Servicio Electoral de Chile, SERVEL)**의 선거운동 및 정치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공영방송 및 주요 방송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.

2. 사회적 통념

-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개방적인 사회이나, 가족 중심 문화와 상호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.
- 과거보다 종교의 영향력은 감소했지만, **가톨릭과 기독교 문화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나 종교적 모독 표현은 일부 시청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.**
-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폭넓게 보장되지만, **1973년 군사정권과 인권침해, 사회계층 갈등, 원주민(Mapuche) 문제 등 역사·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.**
- LGBTQ+ 관련 콘텐츠는 중남미에서 비교적 높은 수용성을 보이며, 방송과 OTT에서도 다양한 소재가 활용되고 있다. 다만 청소년 대상 콘텐츠에서는 노골적인

성적 표현보다 다양성과 존중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
- 폭력 및 범죄 묘사는 허용되는 편이나, **아동·청소년 대상 폭력, 성폭력, 가정폭력의 미화 또는 잔혹한 묘사는 사회적 비판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.**
- 칠레 사회는 다양성과 인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, **인종, 성별, 장애, 이민자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사회적 논란과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**

3. 채널 및 온라인 플랫폼 내규

- 칠레의 주요 방송사인 **TVN, Canal 13, Mega, Chilevisión** 등은 CNTV의 방송 기준을 반영한 자체 심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.
- 방송사들은 가족 시청 시간이 많은 **주간 및 초저녁 시간대에는 폭력성과 선정성이 낮은 프로그램을 편성**하며, 성인 대상 콘텐츠는 심야 시간대로 배치하거나 일부 장면을 편집하는 방식을 활용한다.
-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정치적 균형성과 사실 확인을 중요하게 관리하며, 허위정보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내부 법무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.
- 넷플릭스, 디즈니+, 프라임 비디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은 칠레에서 자체 연령 등급 시스템과 보호자 통제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, 현지 법률이나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콘텐츠의 노출 제한 또는 서비스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- 유튜브는 연령 제한, 성인 인증, 광고 제한, 댓글 제한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폭력적이거나 성인 대상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으며, 칠레 법률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지역 차단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.
- 틱톡과 메타(페이스북·인스타그램)는 칠레 현지 법령과 글로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함께 적용하여 **혐오 표현, 허위정보, 폭력 선동, 차별적 콘텐츠, 개인정보 침해** 등에 대해 삭제, 노출 제한,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시행한다.
- OTT 및 디지털 플랫폼은 최근 생성형 AI 콘텐츠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도 허위정보 및 초상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자체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,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노출 제한이나 경고 표시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.